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 선정

배우 강길우·김보라... 내달 9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진행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오는 5월 9일 오후 6시 30분으로 예정된 폐막식 사회자로 강길우 배우와 김보라 배우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30일 개막하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10일간의 풍성한 축제 끝에 5월 9일 오후 6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대관원의 막을 내린다. 올해 폐막작은 김옥영 감독의 <기계의 나라에서>이며, 폐막식 사회자는 강길우 배우와 김보라 배우로 낙점됐다.



강길우



김보라

강길우 배우는 제23회와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도 사회를 맡은 바 있으며, '전주프로젝트' 작품 <정말 먼 곳>(2020)에도 주연으로 출연하며 전주국제영화제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 <프랑켄슈타인 아버지>(2025), <전.란>(2024), <로기완>(2024)을 비롯해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2025), <악귀>(2023), <더 클로리>(2022), <재벌집 막내아들>(2022) 등 다양한 장르와 시대를 넘나드는 활약을 펼치며, 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인상 깊은 캐릭터로 대

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함께 폐막식 사회를 맡은 김보라 배우는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가치봄(배리어프리) 앰배서더'로 선정됐으며, 제26회 가치봄 영화제에서도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드라마 <SKY 캐슬>(2018)을 통해 브라운관에서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김보라 배우는 드라마 <사마귀>(2025), <백설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2024), <모래에도 꽃이 핀다>(2023), 영화 <옥수역귀신>(2023), <과기맨션>(2021), <굿바이 썸머>(2019) 등에서도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스크린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제95회 춘향제 전방위 홍보

글로벌춘향선발대회 본선 진출자 38여명, 전주월드컵경기장서 홍보 나서

남원시가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관한루원 및 요천변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섰다. 실제로, 시는 발로 뛰는 현장 방문 등 차별화된 이색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 직원들은 지난 20일 글로벌춘향선발대회 본선 진출자 38여명과 전주 월드컵 구장을 찾아 입장객들에게 춘향제 홍보 및 축제 방문을 독려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남원 춘향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전광판, 전주 택시 협광광고, 소주병(참이슬) 라벨, 농협 ATM 기기 등을 활용해 춘향제 축제 정보를



노출하는 등 그야말로 홍보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 축제에서 벗어나 전국 및 글로벌 축제에 발돋움하고 있는 춘향제를 전방

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 홍보 매체 활용과 더불어 외국인인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전보다 홍보 단위를 넓히고 있으며, 남원시 공식 소통 창구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춘향제 관련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으며, 홍보 확산을 위해 각종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벤트 참여는 현재 유튜브(남원시 TV)와 인스타그램(goodnamwon)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축제 기간에도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새로운 관광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인 '미션 투어'와 같은 현장 방문 이벤트를 비롯해 온라인 이벤트도 추진하는 등 춘향제를 다채롭게 만날 수 있으며, 축제 기간에 진행되는 '대규모 미션 투어'는 총 5가지 미션 중 필수 미션 3개를 포함하여 총 4개 미션을 수행, 후기를 작성하는 만큼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으로도 인기를 끌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문화재단-전북대 무용학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협력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22일 한국전주문화재단 4층 세미나실에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학과장 이나현)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락기 대표이사, 이나현 학과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지역 예술교육의 저변 확대와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동·청소년 대상의 무용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예술교육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생애주기별 교육 및 도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지난 3년간 국가 공모사업인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을 공동 운영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주문화재단은 행정과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전북대 무용학과는 교육과정 기획 및 교육 인력 지원을 담당하며 호응을 맞춰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어린이·청소년 발레단 '전주 프릭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위원의 구성 및 민·관·학 협력 모델 확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예술교육 사업을 통해



추진된 이번 협약이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오랜 파트너인 전북대학교와 밀도 높은 협력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 두길교회 구 예배당' 가치 보존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무주 두길교회 구(舊) 예배당'이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고시됐다. '무주 두길교회 구 예배당'은 1954년 김성녀 집사가 희사한 두길마을 중앙의 100평의 대지 위에 지어진 20평 규모의 5량 집형태의 전통 한옥 지붕 구조를 가진 건축물이다. 한국전쟁 상황 속에서도 교인들이 직접 나무를 깎고 흙벽을 바르고 지붕을 이어 지었다고 전해진다. 정방형의 예배당 정면에 자리한 현관 '포치(Porch)'는 건물에 이끌려 지붕을 대어 지어진 출입구(좌우 구분),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의 출입문을 구분했던 관공이 건축물에 반영돼 있다. 이는 같은 시기 다른 지역 예배당 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적 특징으로 한국 교회 예배당 건축의 변천 과정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군 태권문화회 박금규 과장은 "두길



교회 구 예배당은 2023년 무주군 향토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주 두길교회 구 예배당의 가치를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실천면 하두길에 위치한 두길교회는 1904년 미국 남장로교 소속의 마로덕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건립된 곳으로 12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무주 두길교회 구 예배당은 최근까지 두길교회 교육관으로 사용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인도네시아 여행사 초청 '호남권 팸투어'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라남도관광재단, 광주광역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사 관계자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 21~24일 3박 4일 일정으로 호남권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팸투어는 전남, 광주, 전북 순으로 진행되며, 인도네시아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호남권 각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을 직접 소개함으로써 방한 관광 상품 공동 개발과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전북권 팸투어는 23일 진행, 오전에는 순창 발해미파마교, 오후에는 전주한옥마을, 한지체험 등 지역의 매력을 경험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권 일정을 마친 후 진행되는 호남



권 관광상품 개발 협의에서 전북의 우수한 관광자원 중 '웰니스 관광'을 중심으로 한 신규 콘텐츠를 집중 소개하고, 기존과 차별화된 참신한 상품과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여행사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온 가족 함께하는 '어린이축제'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박물관 일원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후 3시 '버블쇼'를 시작으로 어린이축제 X 광복80주년 맞이 '전북소리순 오케스트라'의 특별 공연이 4시 30분부터 펼쳐진다. 오케스트라는 (태극기 휘날리며) '라이언 킹' (아름다운 나라) (고향의 봄) 등 어린이에게 친숙한 곡을 포함해 총 8곡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어린이박물관 관람(참방잡방 회화), △페인팅, △캐리커처, △풍선아트, △솜사탕 만들기, △박물관 정원 속 그리기 마당, △보물찾기 등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옥외뜨락에서 진행된다. 이 외에도 박물관 정면에서는 피에로와 인사를 나누면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기획 캐릭터 포토존 '휘리리' 이 상시 운영된다. 또한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보물찾기 경품 이벤트 등이 마련돼 있어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